

49. 북방왕의 행사들을 예언함

2012. 12.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북방왕의 역사적 행사들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볼 것입니다. 예언은 아주 자세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계시하신 역사의 배후의 영적 투쟁, 즉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투쟁이 역사에서 어떻게 전대되는지 보여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1:31,32]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귀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26절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첨가하는 일을 통하여 언약을 배반하는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과 십자군으로 예루살렘 점령 당시에 있었던 사실까지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다음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24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잠깐 지나가면서 말했지요. 오늘은 25절부터 말씀을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24~30까지는 십자군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25절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지요.

[단11:25~27]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26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24절에서 그, 즉 북방 왕이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십자군을 일으켜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십자군을 일으켜 엄청 살육을 자행함으로 예수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결코 행하지 않았고 행해서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지요. 바로 그 북방 왕으로 표상된 교권로마가 힘을 떨치고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치러 가면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로 북방 왕의 군대를 맞아 싸울 것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북방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

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해야 확인이 됩니다. 애청자들께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 하시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1 14, 16절에서 북방 왕이 제국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북방 왕 곧 로마의 위를 이을 자가, 일개 교구의 감독으로서 로마의 정치적 권세를 이어 받은 교권로마를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도 그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24, 25절의 북방 왕이 교권로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남방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역사적 국가인 애굽이 아니라 종교적 국가가 된 북방 세력과 대치하는 다른 정치적, 종교적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이겠지요?(아마 이슬람 세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또한 이 세력은 애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남방 왕의 세력은 이슬람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문사, 기독교 대백과 사전, 10권, 719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내용은 제 1회 십자군 전쟁을 예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 우르반 II세와 그의 동조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별떼같이 일어난 군대들은 곧장 3,000km가 넘는 원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북방 왕의 군대도 컸지만 이를 대적하는 남방 왕의 군대로 컸습니다. 그러나 북방 왕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유는 북방 왕이 모략을 베풀어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풀어 침**이란 말은 24, 25절에 거듭 나오는데, 그 모략이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십자군을 동원한 방법에서 이런 모략의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동자들은 이슬람 국가인 셀주크 투르크인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박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다만 당시 유럽인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삼성 출판사, 대 세계의 역사 5권, 159) 있었던 것은 선동자들의 모략에 미혹된 결과였습니다. 선동자들은 또한 “성지 탈환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종군자의 가족과 재산은 교황의 직접 보호를 받으며, 만일 성지에서 쓰러지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대 세계의 역사, 160) 선동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군을 동원하려는 모략이었지요. 그러니까 모략을 베풀어 남방 왕을 쳤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한 것이지요. 전투 방법으로 모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집하는 일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 모략을 쓴 것입니다.

2.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니까 모략을 베풀어 쳤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사실 교권로마는 군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사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략을 베풀어 쳤다는 예언을 실감나게 묘사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지요?

답: 예, 24절의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는 말씀은 25절과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25절은 24절을 보완 중복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5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라. 교황권에 의하여 동원된 십자군은 큰 군대였고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11장 14, 16절에서 북방 왕은 제국로마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았지요. 그리고 21절부터는 북방 왕 곧 로마의 위를 이을 자가, 일개 교구의 감독으로서 로마의 정치적 권세를 이어 받은 교

권로마를 가리키는 것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남방 왕은 역사적 국가인 애굽이 아니라 북방 세력과 대치하는 다른 정치적, 종교적 세력이 분명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또한 이 세력은 십자군 당시에 애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남방 왕의 세력은 이슬람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기독교문사, 기독교 대백과 사전, 10권, 719 참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25절의 내용은 제 1회 십자군 전쟁을 예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 우르반 II세와 그의 동조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별떼같이 일어난 큰 군대들은 곧장 3,000km가 넘는 원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모락을 베풀어 친다는 말이 24, 25절에 거듭 나오는데, 십자군을 동원한 방법에서 이런 모락의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동자들은 이슬람 국가인 셀주크 투르크인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박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출판사, 대 세계의 역사 5권, 159에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다만 당시 유럽인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선동자들의 모락에 미혹된 결과이며, 선동자들은 또한 “성지 탈환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종군자의 가족과 재산은 교황의 직접 보호를 받으며, 만일 성지에서 쓰러지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대 세계의 역사, 160) 선동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군을 동원하려는 모락이었지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주며 모락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예언 속에는 십자군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결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기독교문사의 기독교 대백과 사전, 10권, 732 쪽에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 주”는 일을 십자군의 지휘관이나 십자군을 일으킨 교황이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군의 결과로 일어난 상류 사회의 쇠퇴와 중, 하류층의 발흥을 예언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십자군 국가들이 이탈리아인의 도시를 발아시킴으로써 획득된 전쟁 지역들은 이탈리아인들로 하여금 모슬렘 세계와의 교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십자군 국경을 넘어서까지 상업 기지를 건설케 해주었는데 이 중 어떤 기지들은 1291년이 지나서도 계속 번영하였다. 그들이 제공한 수송은 선박 건조술의 발달에 중요하였다.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교황과 왕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기관이었다. 카타란스 사람과 프로방스인들도 혜택을 입었으며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였다.”고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 정말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군요.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아전인수(我田引水)나 견강부회(牽強附會)라고 할 여지가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 목사님, 참 까다로운 말씀을 하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목적에 일치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시된 다른 설명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나 흐름이나 의도에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면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비난하는 것일 뿐이지요. 많은 경우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다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24:15에서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연구되어야 하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언의 바른 해석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길이지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대안 없이 견

강부회라고 하거나 아전인수라고 하는 비난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4. 예, 확실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지요?

답: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첫 시험에 예수께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대항하셨지요. 그러자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지요. 마귀가 성경말씀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자기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기 의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합니다. 설교단에서도 그렇고 도덕적 교훈을 위하여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용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혹은 신앙생활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성경의 본의와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성경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5.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애청자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강론을 듣고 성경적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군요.(예) 다음 말씀들을 이야기 하시지요.

답: 예, 이제 26절부터 말씀을 나눌 차례군요. 먼저 말씀을 읽고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단 11:26,27입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단11:26,27]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고 했는데, 이것은 제5회 십자군 때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군은 소년 십자군들이데, 이들을 운송한 선박 상인들이 소년 십자군들을 노예로 팔므로 십자군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군대는 흠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이 파선으로 죽었습니다. 이 선박 상인들이야말로 교권의 진미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에 이 두 왕이 서로 해코지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는 말씀은 이 무렵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동상이몽의 두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군을 일으키는데 함께 한 왕들입니다. 십자군 원정을 공식적으로 제창한 최초의 인물은 교황 우르반 II세이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탈환을 제기한 사람은 동 로마(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I세(1081~1118 재위)였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셀주크 투르크의 세력이 동로마를 위협하므로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교황을 멸시해 왔는데 도움을 요청할 지경에 이른 것이었지요. 또한 교황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서 교회를 통일하고 권력의 정상에 서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밥상에 앉은” 것 같은 입장이었고 그들의 속셈은 달라서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말의 실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군의 원정이 시작되고 보니 그러한 소망이 부질없는 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1차 십자군이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자 황제 알렉시우스는 그들에게 신하로서의 복종을 요구하고, 십자군이 탈환한 동로마 영토는 모두 알렉시우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지요. 이런 일로 반감이 싹튼 십자군은 마침내 4회 십자군에 이르러 예루살렘 회복은 안중에 없고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라틴 제국을 건설하는 촌극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대 세계의 역사 5권, 161, 162권 참조). 그랬으나 피차 그 일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정된 기한”이란 그들이 하는 일에 한계가 온다는 의미이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6. 목사님, 우르반 2세와 알렉시우스 황제와의 관계에 대한 예언은 참으로 기가 막히도록 이루어졌군요.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은 연구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예언을 주셨네요.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언 연구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구하여 확인하고 입증되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텐데요.

답: 상징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압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언이 복음의 확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언을 연구하면 더욱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7. 다음 28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분명하겠지요?

답: 당연히 그렇지요.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시다.

[단11:28~32]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귀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감사합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라는 말은 24절의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나누어준다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십자군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이 활발하여지고 동양의 여러 상품들을 유럽인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라는 말은 23절에서 이 세력이 약조를 어기고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고 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 교권로마가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을 보았지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라는 말씀은 이것을 설명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에 종군하면 구원과 속죄가 틀림없이 보장된다는 약속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임의로 행하는 모습의 한 면이기도 하지요. “종군자의 가족과 재산은 교황의 직접 보호를 받으며, 만일 성지에서 쓰러지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대 세계의 역사 5권, 160)이라는 약속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임의로 행하는 모습입니까. 본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29 작성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전만 못하리니라고 한 것은 십자군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군사를 일으킬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뜻대로 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8차의 십자군 전쟁에서 1회와 6회 외에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고 했는데 무슬림들은 십자군 전쟁 동안 헬라의 군함을 빌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깃딤은 “서방의”라는 뜻인데요, 서방 헬라의 군함이 동원되어 십자군을 공격한 일은 십자군들로 물러가게 하는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권로마에 의하여 일어난 십자군은 성공적인 성취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28절 참고). 십자군들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곧 교권로마를 중히 여기고 그들을 세우며 충성하였습니다.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라는 말씀은 8장 11, 12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군은 교권로마 편에 굳게 서서 그가 하늘 성소 봉사를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때와 법을 번개하여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세운 것과 그것을 그들의 권위의 표로 주장하는 일을 확고하게 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7:25, 8:11~13 해석 참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장차 닥칠 큰 환난과 관련하여, 예수님 당시에서 미래에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8장 13절, 9장 27절, 본 절과 또한 12장 11절에 나타나는데 의미상으로는 다 같은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끝난 세력이 아니라 긴 역사적 기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해 왔으며, 그런 기간 동안 그의 편에 서서 활동한 세력 또한 많았습니다. 십자군도 중요한 세력으로 교권로마의 이런 일을 굳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 세력은 기원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결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세력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중심적으로 교권로마이며 “거룩한 교회” 자리에 “교권”을 세우고 “거룩한 안식일” 자리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의 “표”인 “일요일 준수”를 세우고, 이것을 그들의 권위의 표로 주장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가 되게 한 것입니다(7:23, 8:11~13 해석 참고).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 하는 자를 궤홀로 타락시킬 것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교권로마입니다. 교권로마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궤홀로 꺾어 교권로마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르도록 하므로 타락시켰습니다. 궤홀이라고 번역된 말은 “할라코트”인데 감언이설이라는 뜻입니다.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에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권세는 사람들을 이처럼 진리에서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악행하는 자”라고 번역하여 한 사람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원문은 “악행하는 자들”로 복수입니다. 32절이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해가 쉽도록 번역하였는데요, “계약을 배반하는 자는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겠지만 하나님께 충

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나설 것이다”(공동번역). 또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번역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교권로마가 감언이설로 언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자기편에 끌어 복종케 하는 그 시절 동안에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겨 그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교권을 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처음에 봉독한 말씀이지요. 그 대표적 사람들은 1170년경의 프랑스 리용(Lyons)의 상업하는 사람으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한 왈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무리 곧 왈도의 무리-왈덴스-들과 영국의 개혁자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와 그의 추종자 롤라드(Lollards), 후스의 무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진리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다 진리를 깨닫고 용맹을 발하여 진리의 증인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생명의 권세는 결코 없앨 수 없었지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8. ,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기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역사에 일어난 엄청난 배도에 대하여 오래전에 이미 예언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올바르게 연구하여 깨닫고 성경이 가르쳐주신 대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